

www.peaceone.org

평화누리 통일누리

2019년 12월 Vol.190



현안 _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원폭 피해자들과 함께 한 송년모임
교황에게 한국원폭피해자의 편지전달

지역소식



1 [사진에세이] 1년을 돌아보며 + 박하영, 오미정

2 [현안_방위비분담금]

줄속타결 우려커지는 방위비분담 협상, 그래픽과 문답으로 알아보는 쟁점
+ 유영재, 오미정



13 [한국원폭피해자문제]

원폭피해자와 함께 한 송년회 + 박하영, 오미정
한국원폭피해자의 목소리를 교황에게 전달하다 + 박하영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 + 이규열
인간의 고통 앞에 종림은 없다. + 이기은
교황, 나가사키에서 핵무기없는 세상 호소 / 핵무기 금지조약 가입 서명운동 제안



25 [2019 평화아카데미]

“해방 74년, 우리에게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 김인아
평화홀씨를 퍼트리다 + 유수진



28 [공지] 기부금 영수증 신청 회원 명단



30 [소식] 광주/군산/목포/대구/보령/부천/성남용인/부산/서울/순천/대전충청/인천

39 [회비와 후원금] 감사합니다.



▲ 2019년 12월 16일, 외교부앞
▶ 2018년 12월 20일, 외교부앞



1년을 돌아보며

사진과 글 : 박하영, 오미정

어느덧 연말입니다. 2018년 12월 20일과 2019년 12월 16일.

둘 다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외교부에 온 날이고, 평통사가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한 날입니다.

돌아보니, 문재인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관련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보낸 1년이었습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야 할 대화의 문은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1년이 흘러 지금을 떠올리며 뼈저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졸속타결 우려커지는 방위비분담 협상, 그래픽과 문답으로 알아보는 쟁점

평화통일연구소 유영재 연구위원 / 오미정 연구원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을 위한 5차 협상이 지난 12월 17~18일에 있었다. 미국은 여전히 미군인건비를 포함한 총주둔경비를 넘어 해외미군 작전비 등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까지를 포함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주한미군기지 한국인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기존 방위비분담협정(SMA) 틀 내에서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은 이미 졸속타결로 가는 중대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무기 도입과 주한미군 4개 기지 조기 반환 합의, 호르무즈 파병 등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 협정 틀 밖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주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이른바 '협상카드'들은 방위비분담 증액 부담을 덜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안보적, 외교적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는 것으로 결코 협상카드가 될 수 없는 것들이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2020년 1월 초 워싱턴에서의 방위비분담 6차 협상을 졸속적으로 타결한다면 이는 방위비분담 증액에 96.3%가 반대하며 미국의 무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에 분노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짓이다.

이에 12월 12일 평화통일연구소 주최의 강좌 <트럼프 정권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요구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에서 발표했던 자료와 질의응답 내용을 재구성하여 방위비분담 협상의 문제점과 쟁점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Q.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어디에 근거하고 본질은 무엇인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SOFA, 1966년)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 협정”이다. 1991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 중에서 미군 및 미군속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화지출경비(한국 화폐로 지출되는 경비) 중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즉 미국이 책임져야 할 주둔경비를 한국에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애초부터 불평등하고 불법적인 것이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는 조약의 적용범위를 명백히 ‘남한’으로 한정. 4조는 미군의 남한 주둔 규정
- **한미소파** 5조는 (남한 방어를 전제로)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할 것을 규정

총주둔비용	미군 및 미군속 인건비	운영유지비	가족주거비	군사건설비
	미국 책임			미국 책임

-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소파 5조의 특별조치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규정.

총주둔비용(1991년)	미군 및 미군속 인건비	운영유지비	가족주거비	군사건설비
26.2억 달러	17.3억 달러	8.1억 달러	2400만 달러	200만 달러
	미국 책임	미국 책임 중 원화지출경비의 일부를 한국에 전가. 한국이 1.5억 달러 부담		

Q.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는 어떻게 나온 계산인가?

트럼프 정권의 새로운 계산법

= 총주둔비용 + 50%(세계 패권전략 수행비용)

= 35억 달러+15억 달러 = 50억 달러 ?

미 정부 지출 주한미군 총주둔비용 (2018년)	미군 인건비	운영유지비	가족주거비	군사건설비	+	세계 패권전략 수행비
35억 달러 (미 국방부 운영유지비 개요)	21억 달러	11.4억 달러	2.1억 달러	0.2억 달러		
모두 한국에게 전가하려는 의도						한국 전가 의도

Q.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요구의 의도와 문제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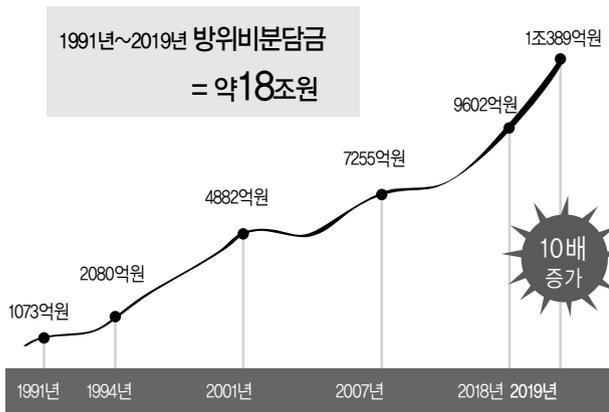
-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등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전체를 뛰어넘어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특히 해외미군의 호르무즈, 남중국해 작전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남한)'를 벗어난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또한 한국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다.
- '주한미군과 군무원 인건비', '작전비용', 해외미군 비용까지 요구하므로 **한미 SOFA 위배**다.
-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가 아니라 총 주둔 경비를 훨씬 뛰어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위배된다**.
- 이는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한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부담하는 근거를 미국 스스로 소멸시키는 셈이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줄 필요도, 줄 근거도 없다. 나아가 주한미군이 세계패권수행군으로 성격과 임무가 명확해진 시점에서 우리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해 줄 이유도 근거도 없으므로, 주한미군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Q. 미군 총 주둔비용이 35억 달러인가? 44.6억 달러인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미 국방부가 매년 발표하는 '운영유지비 개요'에 따르면 미 정부 지출 주한미군 2010~2018년 평균 운영유지비는 9.8억 달러이다. 그런데 2019년 발표자료는 2018년~2020년 운영유지비가 2배 넘게 늘어난 22억 달러로 제시되어 있다. 그 사이 주한미군 숫자에 변동이 없고, 훈련도 줄었는데 운영유지비가 폭증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총주둔경비(2019년 예산 기준)도 2018년 자료에서는 35억 달러였는데, 2019년 자료에서는 44.6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2만6590명의 주한미군 운영유지비가 5만5000명의 주일미군 운영유지비(17.6억 달러)보다 많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혹시 운영유지비를 늘려 총 주둔비용을 늘려잡고, 이를 한국에 전가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Q. 그간 방위비분담금 지불 현황은?



▼ 출처 : JTBC 뉴스룸 화면, 평화통일연구소 자료 제공



1991년 1073억 원으로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노동자 인건비 일부를 부담하던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 1조 389억 원으로 늘어났다. 30여년간 우리가 지불한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무려 18조 원에 이른다. 그 사이 미국은 현금으로 지불되던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중 2조4000억 원을 불법으로 축적하고 이를 전용하여 자신들이 부담해야하는 미2사단 평택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하였다. 2018년 12월 말 현재, 약 2조 273억 원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남아 있다. 미국은 빼돌린 자금으로 돈놀이를 하여 4000억 원 안팎의 이자소득을 챙겼다.

Q.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 방위비분담금만 있나?

한국은 2015년 기준 주한미군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하여 각종 직·간접비용을 지원하는데 그 비용이 5조 5천억 원이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50억 달러(6조 원)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하게 된다면 한국은 그외 직·간접 지원 비용을 포함하여 무려 11조 원에 육박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11조 원은 약 2000만 원의 최저임금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막대한 금액으로 우리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담이 된다.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5조 5천억 원

(「2018 국방백서」, 2015년 기준)

- 방위비분담금 9320억 원
- 미 통신선 사용, 카투사 지원 등 416억 원
- 기지주변 정비 등 1조 5천억 원
- 토지 임대료 평가 7105억 원
- 카투사 기회비용, 훈련장 사용지원 1172억 원
- 세금 면제 및 공공요금 감면 1226억 원
- 평택기지 이전비 등 한시적 지원 약 2조원

Q. 방위비분담금 투쟁 기조가 '협상 중단, 협정 폐기'여야 하는 이유는?

평통사가 '협상 중단,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배경은 이번 방위비분담 협상이 지난 30여 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불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애초에 방위비분담협정은 미국의 미군철수 압력에 굴복하여 한미소파를 위반하면서 시작된 불법협정이다. 그나마 지난 30년 동안은 큰 틀에서 주한미군과 미 군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협정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들이대면서 이 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해외미군까지, 주둔경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인건비, 작전비, 심지어 호르무즈와 남중국해 작전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방위비분담특별협정뿐 아니라 그 모법인 한미소파(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위반하는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정권이 방위비분담 제도의 근간이 되는 조약과 협정을 모두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협상이다. 이에 한미 당국자들이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협상을 한다면 이는 월권이다.

그래서 평통사는 미국 요구 중심으로 진행되어 수세에 빠질 수 밖에 없는 불법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불법적·약탈적 요구의 통로로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Q. 정부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을 방위비분담 협상 카드로 쓸 모양인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은 국제법적 원칙이자 한국 환경법의 기준이다. 당연히 미국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환경주권을 포기하고 그 비용을 내겠다고 하니, 아주 굴욕적인 것이다. 정부는 이미 "한·미 협의 결과 현행 SOFA 체제 아래서는 협의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경향신문 2019. 9. 28)했다. 이에 따라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예산이 이미 우리 국방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또한 이미 정화에 들어갔다. 오히려 한국정부가 스스로 부담을 하겠다고 함으로써 미국이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안내도 되게끔 미국의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미국이 오염정화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방위비분담

금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하거나 낮출 가능성은 전혀 없다.

더구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반환받기로 한 4개 기지의 정화비만 하더라도 1100억 원에 이르고, 한국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26개 기지 정화비용은 1조 500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보도(동아일보, 2019. 12. 12)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던 문제인 정부의 어설픈 협상 전략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막기는커녕 또 다른 막대한 정화비용 부담이라는 혹을 붙이고 말았다.

Q. 미국 무기구매 전략이 협상카드가 될 수 있는지?

방위비분담금은 늘리고 무기는 무기대로 사줘야하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무기 판매는 무기 판매대로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 무기도입비는 약 75조 원으로 연평균 2.5조 원에 이른다. 향후 예정된 미국 무기도입비도 1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그런데 미국 무기도입은 미국 주도의 한미동맹과 그에 의거한 대북 군사전략에 의거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미국 무기도입에 대한 소요가 제기되면 한국군의 미국무기 도입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이 수립한 대북 군사전략이 존재하는 한 방위비분담금의 과다와 무관하게 미국 무기도입은 계속되고 비용 지출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미국 무기를 대거 도입한다고 해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포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무기구매전략이 방위비분담금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없다.

Q.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하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미국 요구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침을 결정한 것 역시 자충수일 뿐이다. 문제인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수용한 것은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되는 문을 여는 것이다. 또한 이는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분쟁에 계속적으로 한국군을 동원하고, 여기에 국민 생명과 추정조차 어려울 정도의 많은 자산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위비분담금에 버금가는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 명분 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한국군이 동원되었던 것처럼 미국의 이란과의 명분 없는 분쟁에 한국이 개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명분과 비용 그 어떤 측면에서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막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Q.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지렛대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주한미군이 감축되어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 (중앙일보, 2019.11.25)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철수 카드를 가지고 한국 정부를 위협하고 있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미군은 결코 스스로 나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를 거부해도 미군은 철수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압력은 허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국은 이미 우리 스스로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

추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미군 감축·철수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정책적 판단의 결과였다.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국익, 평화, 주권 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환영할 일이다.

Q.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그냥 미군 철수하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나?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 전례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4%가 주한미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경향신문 2019. 12. 16). 이는 우리 국민의 의식이 아직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제치고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전면화할 시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지금은 방위비분담금 투쟁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폐해와 주한미군 주둔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여나가야 할 시기이다.

Q. 트럼프가 국방예산 증액 결의를 지키지 않는 나토(유럽)회원국들에 대해서 무역보복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을 위해 무역보복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결론부터 말하면 무역보복을 위협하기도, 무역보복을 실행하기도 어렵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해 자동차수입 관세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

지만 무역확장법 232조는 올해 5월에 6개월 유예를 선언하였고 지난 11월 17일 그 기한이 넘어가 이제 다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 또한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무역보복으로 위협을 한 전례가 없으며 논리상으로 맞지 않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요구대로 되지 않아 무역보복을 결행한다면 미군의 주둔이, 한미 동맹이 한국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다. 위협에 굴할 필요가 없다.

Q.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위비분담금의 90%는 한국에 다시 들어가는 예산”이라며 방위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는데, 사실이 어떤가?

이 주장은 우리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여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기만적 논리이다. 방위비분담금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국민민복에 쓰여야 할 한국인 혈세를 미국이 가져다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 쓴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우리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3780억 원을 절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 한국인 노동자 대신 미 군무원을 고용할 경우 미국 예산으로 지출하게 될 약 1조 원을 절감하는 셈이다.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 용역도 마찬가지 경우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3권도 박탈당한 채 일상적인 해고위협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1991년 한국인노동자가 1만4100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8900명이다. 그사이 방위비분담금은 10배가 올랐는데, 한국 노동자는 5천명이 줄었다. 방위비분담금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도 사기다.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산업 활동과 별 관계도 없는 주한미군 군사 활동에 사용되기보다 우리 민생 복지에 쓰이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산업과급효과도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Q. 인건비를 주게 되면 주한미군은 한국의 ‘용병’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

용병의 본질은 돈을 주고 병력을 사서 자기 필요와 요구에 맞게 쓰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준다고 해서 한국이 원하는 대로 미군을 쓸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을 장악하여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한국군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의 주한미군 인건비 요구는 한국의 용병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을 핑계로 주한미군 총주둔비용을 뛰어넘는 규모의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인건비를 주니까 주한미군이 우리 ‘용병’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한미FTA와 효순·미선 여중

생 사건의 살인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조차 행사할 수 없는 정치적·사법적·경제적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며 주한미군 인건비 부담을 정당화시켜주는 불순한 주장이다.

Q. 미국이 최근 들어 “한국 방어에 필수적인 대비태세(readiness) 유지비” 항목 신설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데, 무슨 의도인가?

5차 방위비분담 협상(12월 17~18일) 직후 기자회견을 한 드하트 미측 대표는 “현재 SMA에는 포함되지 않은 더 큰 비용이 있는데, 미국 군대의 순환배치와 임시배치, 훈련이 필요한 인력들이 있다. 그들은 적절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이곳으로 운송되거나 돌아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준비태세(readiness)를 최고조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능력 자체를 개발하지 않아 우리가 제공하는 보완 전력(bridging capabilities)들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매우 비싸고, 모두 한국의 방위에 매우 중요하다.”(중앙일보, 2019. 12. 18)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방위비분담협정 틀 밖의 주한미군 순환배치나 한미연합연습, 감시·정찰전력 등 이른바 ‘준비태세’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대비태세 유지비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비로 3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철희 의원이 밝힌 데서 보듯이(중앙일보, 2019. 10. 18) 미국은 이를 통해 50억 달러 요구의 상당 부분을 받아내려는 것이다.

대비태세 유지비는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벗어난 것으로 그 개념과 포괄 범위가 모호하여 미국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항목을 허용할 경우 우리는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Q. 최근 방위비분담 협상 대응을 하는 일부 단체가 내세운 “동맹이나 날강도냐”는 구호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하나?

동맹을 날강도와 대비한 이 구호는 동맹은 좋은 것, 날강도는 나쁜 것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것으로 동맹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구호이다. 동맹의 의미는 “우·적(友敵) 개념에 입각한 전·평시 잠재적 전쟁공동체”이다. 동맹은 친구와 적이 전제되어 있다. 한미동맹은 한미양국을 친구로, 북을 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대북 적대적이다. 이런 점에서 “동맹이나 날강도냐”는 구호는 동맹을 미화하여 결국 대북 적대적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미동맹의 대북 적대성을 극복해야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가 공고화되어 한반도의 대결과 적대관계가 청산될 수 있다.

Q. 트럼프 미 대통령이라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가? 미국의 주류세력도 같은 입장인가?

미국이 기왕의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모두 짓밟으면서 방위비분담금 6조 원을 요구하는 배경은 세계패권전략과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결에 드는 비용을 동맹국에게 떠넘기려는 데 있다. 미국의 「국방전략(NDS)」(2018. 1)은 “(동맹과 파트너십의) 공동방어를 위한 자원의 공동이용과 책임분담은 미국의 안보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미 협상 대표단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큰 틀의 노력”이라면서 “한국이 이 전략에 방위비를 낼 수 있도록 ‘신설 항목’을 만들자고 요구”했다(ibc, 2019. 11. 20). 이는 중국 포위를 노리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과 이란을 겨냥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대한 파병 요구와 비용 부담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 점에서는 트럼프 정권과 미 주류의 입장이 같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개인으로 보자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자신의 최대 관심사인 재선을 위한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려는 것이다. 한국을 시범 케이스 삼아 일본과 나토에도 방위비분담금이나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려는 의도도 작용하고 있다.

Q.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건 방위비분담금을 올리더라도 남북문제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계산에서 그런 건 아닌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차 협정 때도 남북관계 개선을 승인받으려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 해준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도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스스로 입지를 좁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면 방위비분담금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문제를 미국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국은 남북관계 문제를 지렛대로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문제를 풀어내려면 자주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대화를 풀어내는 데도 도움된다.

Q. 방위비분담금 투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방위비분담 문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언제 대폭 올랐는지를 보자. 1970년대 후반 미국이 주한 미군을 감축할 때, 또 1990년대 초반 냉전해체 후 미군 감축 때, 2000년대 중반 해외미군재배치

전략을 실행할 때 등이었다. 즉 미국이 동아시아 패권전략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에 떠넘긴 것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본질이다. 이런 점에서 방위비분담금 대응운동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대한 투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감축해도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줘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절대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본질, 주한미군에 대한 본질을 깨달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Q.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에 맞서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은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하는 것이다. 한미당국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협정은 올해 말로 자동 종료된다. 이제 우리는 방위비분담금을 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카투사 제도를 폐지하고, 우리 군이 무상 관리해주는 미군의 탄약 관리비도 받아내고, 면세와 공과금 감면도 폐지하고, 세계패권전략 수행군으로의 성격과 임무가 명확해진 주한미군기지 임대료도 받아내야 한다.

나아가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시키고 협정을 폐기시키는 것으로부터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청산하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하는 길을 열어내야 한다.

Q. 협상 전망은 어떻게 될까?

미국은 주한미군 총 주둔비를 뛰어넘는 50~47억 달러를 요구하고 한국은 방위비분담협정 틀 내의 소폭 인상(4%?)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 전망은 결국 우리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 최근 통일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96.3%의 국민들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노컷뉴스, 2019. 11. 7).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국민도 68.8%나 된다(중앙일보, 2019. 11. 25). 여야 의원 47명이 이례적으로 “갈 데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은 국민 여론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물리치고 국익과 주권,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은 국민의 힘 밖에 없다. 우리가 방위비분담금 문제의 불법부당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런 내용을 널리 확산하고, 1인시위와 캠페인 등의 평화행동에 나서서 국민의 여론을 높이고 힘을 조직하여 한미당국을 압박하는 것이 절실하다. 우리 국민이 단호한 입장을 계속 지키고 이를 행동으로 표출하면 한미당국도 우리 국민의 의사를 거역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원폭피해자들과 함께 한 송년모임 “담쟁이처럼, 저 벽을 넘는다”



12월 26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평통사 주최로 한국피폭자와 평통사 회원들, 지원 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송년모임>을 열었다. 2020년 피폭 75년을 맞아 한국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다. 피해자들은 일제의 강제 동원과 미국의 원폭 투하, 일본 정부의 차별과 한국 정부의 무관심이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살아왔다. 피해자들과 2~3세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 및 조례 재·개정 등 제도적 과제가 있다. 또 핵무기에 의한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폭 가해 책임을 묻고 미일의 사죄·배상을 실현하는 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멀리 제주에서 기꺼이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참석한 강우일 주교는 지난 11월 교황의 일본 방문에 앞서 편지를 보내 한국 피폭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청했는데, 교황이 도쿄에서 발표한 반핵 메시지 중 ‘폭심지에 있던’ 다른 언어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온 이들이란 표현이 바로 한국인피폭자를 지칭한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으로, 문미란 정무부시장은 직접 참석하여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서울시의회 최정순 의원은 조례 제정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얼마 전 인천시가 조례를 제정했고, 대구시 조

례도 개정된 일도 공유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원폭을 투하한 미국에게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의 의미와 민간법정 추진 계획을 소개했고, 전갑생 연구원은 미국의 원폭투하에 대해 자료조사 계획을 밝혔다. 평통사 청년들은 구술채록 사업 활동을 소개하고 원폭피해문제를 더 깊게 공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작가들도 원폭피해문제를 다룬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렸다.

평통사 문규현 상임대표와 고영대 공동대표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함께 핵무기 사용을 불법화 한 핵무기 금지조약(TPNW)에 한국 정부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가입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2020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등 계기를 통해 한국원폭피해문제와 미일의 가해 책임을 묻는 국제 여론 높이고, 2025년 민간 법정을 추진 등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합천, 대구, 부산, 경남 등 전국에서 모인 한국원폭 피해자들과 후손들은 송년모임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됐음을 표현하며 원폭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핵무기 폐기를 상징하는 해바라기

모양의 소품, 한국피폭자들의 역사를 한눈에 보는 사진 전시 및 슬라이드 상영, 준비된 작은 선물 등 행사를 준비한 평통사에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모두 손을 잡고 일제의 불법 강점과 식민지배로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원폭피해자들이 고향을 그리며 불렀던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사진 : 박하영, 글 오미정)





이탈리아어로 쓴 “프란치스코 교황님, 우리는 한국원폭피해자와 그 후손들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핵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를 위로와 희망의 말씀으로 격려하소서” 현수막을 교황이 주시하고 있다. (2019. 11. 24. 나가사키)

한국원폭피해자의 목소리를 교황에게 전달하다

박하영 평통사 국제연대업무 간사

11월 24일~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2차대전 중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규열 한국원폭피해자 협회 회장은 지난 9월 9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대다수가 일제의 식민지배로 강제동원 됐다가 미국의 원폭투하로 인한 피폭과 한국정부의 무관심이라는 2중, 3중의 고통속에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국제사회의 조명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손을 잡아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나가사키·히로시마 방문이 핵무기 사용을 불법화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더욱 더 고무시키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자 일본을 방문한 참가단의 활동을 소개한다.

후쿠오카 공항 입국심사장에서 5시간 동안 억류되다



후쿠오카 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아무런 명분도 없이 입국을 지연시킨 일본 공항당국 (2019. 11. 23. 후쿠오카)

70년 동안 외면 받고 그 목소리가 억눌려왔기 때문일까. 한국원폭피해자의 존재를 알리는 일은 그 첫걸음부터 많은 난관이 있었다. 11월 23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나가사키 폭심지공원 방문과 미사 일정에 참여하고자 일본을 방문한 한국원폭 피해자 1세, 2세 11명과 평통사 참가단이 무려 5시간동안 후쿠오카 공항에 억류된 것이다. 입국관리국 측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참가단의 여권을 모두 수거하고, 참가단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짐수색과 몸수색은 물론 개별 구두심사까지 진행했다. 이에 대해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은 “우리가 범죄자도 아닌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고 항의하기도 했다. 참가단은 일본 나가사키 대교구로부터 받은 미사 참석자 명단과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입국저지에 대한 사유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

변을 받지 못했다. 평통사에서 나가사키 대교구와 한국 외교부, 영사관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례적인 장시간의 심사를 받은 끝에 일본에 입국할 수 있었다.

후에 후쿠오카공항 입국관리국은 “참가단이 관련된 서류를 미리 제시하고 협조했다면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답변을 해왔으며 장시간의 입국저지에 대한 사실과 경위를 적시한 서면요구 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는 참가단의 관련 서류제출이 억류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어처구니없고 허무맹랑한 답변이며, 서면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차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한국원폭피해자를 대신해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해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달라는 요청서를 전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공항 억류 과정부터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요청서를 발송하는 일련에 과정은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오바마 미 대통령 히로시마 방문에 즈음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도 2시간 가까이 억류를 당한 바 있다. 일제의 식민지배로 강제동원 났다가 미국의 원폭투하로 피폭을 당한 것도 모자라, 매년 일본을 방문을 할 때마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게 느껴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한국원폭피해자의 편지와 목소리를 전달하다

11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폭심지공원을 방문해 1945년 원폭희생자를 위한 묵도를 하고 조화를 바쳤다. 교황은 이날 “핵무기 폐기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과 국가, 기관의 참가가 필요하다”고 반핵 메시지를 전하며 유엔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비준을 위해 신속히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1982년 당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핵무기보유국들이 서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군축을 해야 한다는 강령을 채택했지만, 핵무기 보유 자체를 비난하지 않았는데 이와 비교하면 이번 일본 방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핵무기 사용과 보유의 부도덕성에 대한 선언을 가톨릭교회 교리 문답서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뜻 깊고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일이다.

행사 시작 전부터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교황이 행사장에 입장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국원폭피해자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도 있길 기대하며, 교황에게 전달할 편지를 준비했는데 교황이 통로를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준비한 편지를 프란치스코 교황의 수행원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이 편지에서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원폭가해 책임 규명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



교황 일행에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이규열 협회장의 편지를 전달하는 심진태 합천지부장(맨 왼쪽 인물)(2019. 11. 24. 나가사키)

는 한편, 한반도가 세계에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한국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추구면서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 핵무기금지조약의 가입을 촉구했다.

한국원폭피해자들과 평통사 참가단은 폭심지공원 행사를 마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나가사키현 야구장으로 향했다. 5만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미사에 참석했는데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평통사 등 한국 참가단은 나가사키 교구의 배려로 무대와 가까운 앞좌석에 앉을 수 있었다. 미사가 시작되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픈카로 이동하며 참가자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을 축복했다. 교황의 탑승한 오픈카가 참가단이 있는 방향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간절한 마음이 새겨진 현수막을 교황을 향해 펼쳐 보였다. 교황은 오픈카가 방향을 틀 때까지 고개를 고정하고 현수막을 바라보았다. 어떻게든 한국원폭피해자의

존재와 한반도 비핵화와 핵없는 세계 실현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알리고자 만들어간 이탈리아어 현수막이었다.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된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11월 26일, 참가단은 히로시마 평화공원과 박물관을 방문했다. 공원 내 한국원폭희생자 위령비에 도착하자 종이 울렸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오전 8시15분에 울리는 종이였다. 참가단은 이곳에서 간단히 제를 올리고 묵념을 했다. 위령비 가까운 곳에는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큰 유골 무덤이 있었다. 이곳에 묻혀있는 사람들의 명단에는 한국 사람도 존재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히로시마 평화박물관은 원폭투하 당시 상황과 피폭의 참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있었지만, 심진태 합천지부장은 몇 년 전 이 박물관에 왔을 때는 한국인 사상자 현황이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사라졌다고 히로시마 평화자료관은 사실상 유물전시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회의 조명 한번 받지 못한 채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한국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박물관을 견학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평화공원 방문 후에는 세계평화기념성당에서 열리는 한국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미사에 참가했다. 세계평화기념성당은 1945년 원폭투하로 피폭된 예수회 소속 라살레 신부의 제안으로 재건축된 사연을 지닌 성당이다. 세계평화기념성당의 거의 모든 것이 독일 전역에서의 성금으로 지어졌는데, 그 취지는 독일과 같은 세계2차대전 침략국으로서 일본이 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참회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세계평화기념성당의 건축 취지와 모순되는 일본정부의 행보가 떠올라 마음이 씁쓸해졌다.



세계평화기념성당에서 한국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미사에 참가 (2019. 11. 26. 히로시마)

핵무기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핵무기없는 세계를 향해!

비록 기대했던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교황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고 교황의 한국원폭희생자 위령비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지만, 교황에게 우리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소중한 성과였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에 큰 보람을 느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미일 정부의 원폭 가해 책임을 묻는 민간법정과 핵무기 사용과 보유는 물론 타국의 핵무기 배치까지 불법으로 규정한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촉구 캠페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금 절실히 깨달았다. 한국원폭피해자 문제 해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길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

존경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우리는 한국 원폭피해자와 2세들입니다. 저희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주시어 격려해주세요!

존경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한국원폭피해자들은 대다수가 일제의 식민지배로 강제동원 됐다가 미국의 원폭 투하로 2중, 3중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수는 10만 명(5만 명 사망)이나 됩니다. 그러나 식민지 국민이라는 일제의 차별로 부상자 치료는커녕 사망자의 유해조차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한국 피폭자 대다수는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가난과 냉대, 한국 정부의 방치 속에서 원폭 후유증에 시달리다 죽어갔습니다. 후손들도 원폭 피해의 유전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죽거나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피폭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피폭자들의 피해 전모에 대한 조사도, 사죄와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국제사회의 조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미국의 반인륜적인 원폭 사용 때문에 우리가 입은 피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책임을 규명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인류와 지구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는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인류 공통의 염원입니다. 지금도 미국, 러시아 등 핵무기 강대국들은 인류를 수십 번도 더 절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1만 2천 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세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하면 남북을 가릴 것 없이 우리민족은 공멸합니다.

2017년 7월 7일, 유엔총회에서 사상 최초로 핵무기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채택되었습니다. 핵전쟁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한국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여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며 다시는 결코 핵무기가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피폭의 고통과 원인 모를 병마와 싸우며 유전된 원폭의 공포를 온몸으로 견디어온 우리는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운 핵 없는 세계 실현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따뜻한 손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 11월 24일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 이규열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 나가사키 평화기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기은 서울평통사 청년회원

20세기의 광기가 서려 있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평통사는 프란치스코 교황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히로시마에 와서 한국인원폭피해자 위령비에 참배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기회가 한국원폭피해자를 알리고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매우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입국심사관이 여권을 압수해갔습니다.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한국영사관과의 통화를 강제로 끊어버리는 등 비상식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나가사키 교구 대주교 제안으로 교황 미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우리를 범죄자로 취급했습니다.

결국, 5시간 동안 억류된 후에야 공항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 협회측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왔던 고토 도미카즈 변호사는 “한국인 피폭자 문제가 교황 집전 미사를 통해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피해자들의 입국을 단념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장시간 대기를 시킨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시민사회에서 한국원폭피해자의 입국금지 사건에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연대와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뒤로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사를 참석하기 위해 나가사키 폭심지로 향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었습니다. 도착하는 그 순간 한국에서 구술채록했던 여러 원폭피해자분들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구술채록하면서 눈물을 보이셨던 어르신들의 깊은 한이 마치 저를 뒤덮는 것 같았습니다. 원폭을 떨어뜨린 미국은 아직도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죄는커녕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걸음에 휘방을 놓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패권전략에 의해서 죄 없는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원폭피



조선인 피폭자의 자료가 있는 오카 마사하루 기념 평화박물관을 방문한 참가자들 (2019. 11. 25. 나가사키)



한국원폭피해자 위령비 앞에서 평통사 참가단 (2019. 11. 26. 히로시마)

해자협회 이기열 부회장님은 나가사키에서 내렸던 비가 마치 원폭으로 인해서 희생된 한국원폭 피해자의 눈물과 같았다고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빗속에서 반핵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핵무기의 억제력에 의존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핵무기 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보유, 비보유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국가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제조·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핵무기금지조약의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반핵 메시지 발표 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교황의 반핵 메시지에 화답하고 한국원폭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전에 만들어 갔던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교황님, 우리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를 위로와 희망의 말씀으로 격려하소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현수막을 주시하며 지나갔습니다. 비록 공항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목소리를 전달한 것 같아 매우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원폭피해자분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 저로서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원폭 투하 당시 주검마저 차별받던 한국원폭피해자의 모습을 그린 마루키 부부의 <까마귀> 작품을 보면서 슬퍼했던 제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그리고 핵없는 세상을 위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폭피해자의 고통 앞에 핵무기 없는 세상은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중립은 그들의 고통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분들이 한국원폭피해자의 목소리를 알리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실천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교황, 나가사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호소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1월 24일, 나가사키 폭심지공원에서 평화가 두려움 위에서 세워지지 않는다며 핵무기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분량상 언론에 보도된 교황의 메시지를 요약하여 실는다. 내용 출처는 연합뉴스, 경향신문, 바티칸 뉴스 등이다. - 편집자 주

교황, 日 피폭지서 “핵무기 없는 세상 가능…폐기 참여해야”

- “핵무기 폐기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과 국가, 기관의 참가가 필요하다.”
-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는 핵무기 사용이 초래할 파멸적인 파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핵무기와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을 향한 희망에 대한 해답이 아니다”
- “무기 제조와 개량은 터무니없는 테러 행위”, “(핵무기금지조약 체결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해 가야 한다.”
- “천주교가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 추진)을 포함해 핵무기와 군비의 감축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
- “핵무기 없는 세상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확신 안에서, 저는 이러한 무기들이 이 시대의 국내외적 안보가 당면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치 지도자들이 잊지 않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인도적이고 환경적인 관점에서, 핵무기의 사용이 초래할 파국적 영향을 깊이 숙고해야 한다. 또 핵 관련 정책으로 조성된 공포, 불신, 적대감이라는 풍토가 강화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핵 보유만으로도 비도덕” 교황청 강령, 37년 만에 바꾼다

-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유하는 행위 자체로 비도덕적”, “이 의견은 가톨릭교회 교리 문답서에 반드시 기록되어야만 한다.”
- “나는 핵무기 사용이 부도덕하다고 (과거에도) 말했다. 한 정부의 광기가 인류를 파괴할 수 있다”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만약 무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 모두가 호전적 행동을 피하는 데 찬성했다고 해도 거부권을 가진 1개 국가가 ‘노’(No)라고 하면 모든 것이 멈춘다.”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평통사는 핵무기금지조약(TPNW)가입촉구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2020년 4월 까지 1차로 1만 명 서명을 받아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국제 서명 - 한국 원폭피해자는 핵무기 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

-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투하해 70만 명의 민간인들은 무차별적으로 살상(24만 명 사망)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폭자 중 한국인이 10만 명(4만 명 사망)이나 됩니다.
- 살아남은 한국인 피폭자 다수는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가난과 냉대, 국가적 방치 속에서 원폭 후유증에 시달리다 죽어갔습니다. 후손들도 원폭 피해의 유전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죽거나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제 식민지배와 수탈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분들입니다.
- 인류와 지구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는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인류 공통의 염원입니다. 지금도 미국, 러시아 등 핵무기 강대국들은 인류를 수십 번도 더 절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1만 2천 발)하고 있습니다.
- 특히 한반도는 세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민족과 국가는 공멸합니다.
- 2017년 7월 7일, 유엔총회에서 사상 최초로 핵무기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채택되었습니다.
- 핵전쟁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한국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해 원폭 피해자의 한을 풀어 주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및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 이에 한국인 피폭자를 비롯한 우리는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국제서명운동에 발맞춰 한국과 모든 나라에게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합니다.

2019년 11월

핵무기 폐기 국제서명(한국 발기 단체)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성공회대 평화아카데미를 마치고 참가자들과 (2019. 11. 14)

“해방 74년, 우리에게겐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김인아 서울평통사 청년회원

평통사와 함께 하며 두 번째 평화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한미동맹을 주제로 평화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매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아카데미 사업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해 알리고 조직하는 것, 학습한 것을 우리 언어로 발표함으로써 평통사 활동의 주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표로 이번 2019년 평화아카데미는 평통사 청년들이 2월부터 구술채록 활동을 당차게 해오고 있는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를 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평화아카데미는 2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0월 22일 원폭2세환우회 한정순 회장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해 성공회대 학우들에게 알리고, 한정순 회장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모두 분노했습니다.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84세입니다. 하루 빨

리 많은 청년들이 모여 핵무기 참상의 산 증인인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한 구술채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1월 14일 오픈세미나 때에는 한국원폭피해자 문제가 지금의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발표했습니다.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반도는 제2의 피폭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함으로써 인류가 두 번 다시 핵 참화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통사가 진행할 민간 법정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인류사회의 꾸준한 노력들을 소개하며, 한국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세미나 참가한 사람들 모두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서명 용지에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발표 후 질문이 활발했습니다. 50개국이 비준해서 핵무기 금지조약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핵보유국이 비준을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제 조약이 만들어지면 비 가입 당사국에게도 규정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운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원폭피해자가 존재하는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반도는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핵 없는 세계가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는 학우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 핵 보유국이 핵무기 폐기에 소극적인 현실속에서 회의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역사는 진보를 향한 인류의 투쟁으로 결국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나아갑니다. 한반도 평화운동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는 이러한 회의감을 극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핵 없는 세상을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평통사 청년들이 성공회대에서 한 평화아카데미도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얻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평화아카데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4명의 학우들이 구술채록 활동에 신청했으며 현재 성공회대에만 무려 11명의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폭피해자의 존재를 온 국민이 알게 되어, 더 이상 '한국 원폭피해자를 아시나요?'라는 타이틀을 걸지 않아도 될 때까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체결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알리고 역사를 기록하겠습니다. 





부산 평화아카데미를 마치고 참가자들과 (2019. 11. 19)

평화홀씨를 퍼뜨리다.

유수진 부산평통사 청년회원

청년평화 아카데미는 평통사의 내용을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새로운 청년들을 만나는 계기입니다. 저 역시 2017년 청년평화 아카데미를 통해서 평통사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년 아카데미는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를 주제로 피해자 어르신과의 간담회,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강의 등 여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부산평통사 청년들이 다니는 대학을 중심으로 11월 19일 동의대학교, 22일 경상대학교, 28일 부산대학교에서 아카데미를 진행했고 총 60명이 참가했습니다.

먼저 동의대학교에서는 ‘한국 원폭피해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김나영 청년이 ‘한국원폭피해자를 아시나요?’ 강의를 통해 한국 원폭피해자의 의미와 문제점, 구술채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한국원폭피해자 1세 김광자 어르신과 함께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김광자 어르신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 그리고 반인륜적인 핵무기의 참상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살아 있는 역사’로, 청년들에게 피폭 당시 상황, 피폭으로 인한 후

유증, 가족 이야기 등 지금까지 피폭자로서 살아오신 인생에 대해 생생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였습니다. 대담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르신께서 일본에서 피폭 증언을 하셨는데 그때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으셨나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한국 원폭피해자 관련 보도를 하나요?”, “한국 원폭피해자끼리 교류를 하나요?” 등 여러 질문이 나왔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원폭피해의 참상에 대해 궁금해 했고, 어르신은 질문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해 주었습니다.

진주 경상대에서도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정영은 청년의 ‘한국 원폭피해자를 아시나요?’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한일관계로 바라본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라는 주제로 박석분 상임운영위원이 강의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 배경, 주요 내용들과 65년체제의 한일협정과 한일 지소미아까지 이어지는 한일관계와 그 속에서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경상대는 다른 학교에 비해 홍보 기간이 짧아 참가자 수가 적었지만, 정영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준비하고 진행했다는 것이 큰 성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대학교에서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한국 원폭피해자와 간담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류병문 부산지부장과 함께 대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부장을 비롯해 부지부장과 사무국장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류지부장은 “미일정부에게 꼭 사죄와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말하며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평통사와 청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의 가장 큰 성과는 아카데미를 준비한 청년들이 의미를 느끼고 평통사 활동에 대한 의지를 높여냈고, 부산 원폭피해자 협회 류병문 지부장은 평통사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부산은 매주 1회씩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구술채록을 진행합니다. 청년들이 꾸준히 어르신들을 만나 구술채록을 하고, 평통사가 원폭 문제를 알리기 위해 영화상영회, 캠페인 등을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지부장은 평통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발전한 모습의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명단(2019.12.25 현재)

중앙

고영대 권영선 권정호 김광진 김귀옥 김동완 김명래 김용순 김정수 김형배
문규현 문홍주 배종열 변희영 유광수 유영섭 이성호 이일영 이천우 임종철
장경욱 정경호 조상수 홍영진

강원

김주목

광양

강동영 김부필 김용주 김정태 박영실 박주식 박형배 배민후 배영일 신덕희
안성은 오종호 이금한 이영기 이인수 이장수 이종재 이현아(서영원) 이희정
정일태 주경진 최 열

광주

강정원 강춘원 고익종 고재한 기원주 김광란 김기남 김기만 김기현 김덕용
김동우 김동호 김문석 김민선 김민호 김선미 김성룡 김 순 김아영 김영석
김예지 김옥희 김용목 김유민 김은규 김은정 김재중 김정섭 김정은 김중대
김진환 김현태 김희용 노진영 류승환 명경관 박기용 박길원 박상희 박석우
박선이 박오열 박윤수 박재영 박정화 박종명 박지영 박태순 박효섭 박홍환
배무궁 배진하 백지은 변하연 박상진 서경훈 서부원 서현화 성창우 손민섭
송규안 송미숙 송순교 신영훈 안민 안영숙 안효철 양민철 양성수 양승집
양철홍 양혜주 오공희 오봉록 오승경 오정아 오창규 우승관 유유민 위환복
유용열 윤봉만 윤상호 윤종범 윤지숙 윤현식 윤형현 이경진 이광철 이교창
이귀임 이금호 이기호 이다혜 이병석 이병일 이석주 이수경 이승호 이영형
이용주 이윤정 이정호 이지하 이철우 이태욱 이현수 임광석 임대영 임미이
임종모 장관철 장덕자 장성훈 장애란 전주연 정경화 정길주 정동식 정록호
정보형 정성국 정성호 정순인 정재호 정종득 정종범 정찬명 정찬호 정현성
정현우 조용석 조정철 조효숙 주효숙 진재영 차승세 최경미 최기호 최영돈
최용호 최윤민 최치현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홍광표 홍기원 홍요한

군산

양후민 고동식 권태균 김경수 김국태 김봉욱 김상덕 김상영 김성곤 김성수
김성훈 김수진 김우수 김진환 김태철 김형균 나신환 남대진 노승민 문성주
문정숙 문지영 최소영 박운옥 박현동 배형원 서동안 선진숙 송래은 송상구
신동수 신수철 양은희 오금수 오선환 옥경남 위양자 유미숙 유승기 유연택
유하영 이계택 이명로 이봉호 이선희 이종민 이지윤 이진우 이천오 이현주
유미숙 이희정 김규영 임춘희 임홍연 이항근 전희남 정민 정성빈 정옥진
정지숙 조경수 조규춘 조규춘 조용주 조인호 조판철 채영호 최강문 최소영
최은주 최윤진 최이화 최재석 최소영 황 진

김제

권태정 김성수 김영미 김익현 김진원 김진호 김창수 김형에 나인권 나현균
남궁윤 노경두 노규석 박기주 박성구 박영배 박원용 배영술 소광석 손은하
안인상 오인근 유재흥 이운만 이은경 이현수 이희곤 전미영 정현문 정형국
정효영 최홍일 하기호 하성애 허재우 황혜정

나주

김광덕 김민서 김병국 김성보 김요섭 박선재 박정연 안주용 이웅범 이재창
이정훈 이현영 장순영 정윤자 조기태 채규상 최진연

대구

고경수 고윤희 고희림 박영은 권순덕 금장호 김경화 김기욱 김덕기 김미정
김병길 김선희 김승무 김영숙 김영숙? 김은주 김찬수 김호훈 나미숙 노의학
문광덕 문혜경 박배일 박성민 박순중 박영하 박영희 박재범 박주현 박철주

배소라 배인연 백미연 서보성 설동현 신복실 오현희 오혜란 유지수 이기분
이미경 이병수 이상규 이상술 이영훈 이정연 이종균 이종춘 이준원 이종식
이진련 이창주 임진우 장성대 장재호 전창훈 전호관 정민구 정수경 정용섭
정종덕 정훈교 조규천 조유련 천영희 최진영 하재철 함수연 허정호 황병운

대전충청

강대훈 강홍순 고광성 김경숙 김기수 김기현 김도석 김미연 김삼미 김삼중
김성희 김영순 김오경 김홍업 김홍수 나백주 노청래 류기형 모성진 문성호
문양로 민학기 박노찬 박인천 서남철 서영희 석수진 손정희 송광성 송신근
송원준 신성원 신주희 신현정 심우근 심전호 심주호 오광영 오완근 유성호
유영민 유영재 유요열 유정환 유정원 유종철 유진범 윤병민 윤상렬 윤요권
이건용 이광현 이변영 이병구 이세중 이요한 이우근 이은영 이재욱 이종영
이창자 임병언 임춘근 장도정 장명진 장승현 장인백 전양배 전혜련 정명진
정성현 정은선 정창석 정희대 조동중 조만영 조병현 조봉현 조부활 조성미
조영주 조재천 조재형 조주형 최영규 최영민 추교화 한상열 함필주 홍지은
황의대

목포

고정석 권해경 김경희 김관일 김나리 김무영 김미순 김석원 김영재 김용철
김중수 김중석 김지희 김창현 김현우 김호영 류경수 마삼진 문애준 박권철
박 응 박종찬 백동규 백은경 변철진 서정 송원천 송재천 신미진 신재범
신환중 양현주 오승주 유지웅 유훈영 이경수 이구인 이보라미 이윤호 이종환
이지용 임동용 임원택 장문규 장세원 장유진 정석기 정승창 정찬길 조기형
조상현 조영규 조창익 최경석 최창용 최훈 한봉철

무안

김덕현 김병기 김선발 김양수 김영호 김옥길 김형필 김호산 문영란 문유신
박상석 배요섭 송봉선 신민주 오철웅 오해균 윤동주 이정훈 이태석 임재점
정영완 정중석 정찬록 채미라 최병상 최종률 홍석주 홍용식

보령

고미숙 권진복 김영석 김은수 김중석 백용기 상형규 서순희 송미영 안학수
오무광 우장식 이덕표 이영준 이우용 이재문 이정학 이종협

부산

권수진 권창훈 김건우 김광수 김규연 김기래 김나영 김봉현 김선영 김성수
김여원 김명미 김영순 김영환 김영훈 김요아킴 김욱 김유중 김은영 김은자
김재연 김점선 김주희 김혜영 김혜영 김훈규 남원철 남정희 남태호 문배수
문상환 문은경 박경서 박성호 박승일 박승자 박승호 박양준 박종권 배영철
서미숙 서은실 서종범 서진화 설정희 성기석 성은화 송정아 신경희 신상봉
신승태 신양범 신연아 신차범 심나영 안명혁 안중덕 양현호 양화니 우수경
유홍희 윤종렬 윤해정 이강국 이기성 이명욱 이상남 이상인 이상창 이상건
이우영 이의용 이재안 이점숙 이화진 장기홍 장유달 전재영 정성은 정영선
정원욱 정임출 조광호 조병준 진승호 차정인 최병학 하지림 한석문 허남들
허재봉 홍지영 황구화 황도용 황성운

부천

강용환 구지춘 구현모 권항란 권혁만 권희진 김덕희 김동우 김미영 김성애
김성훈 김숙희 김숙희 김용란(박순배) 김정은 김주영 김현주 김혜영 노은하
노형욱 류진남 문충열 민경신 박성진 박영빈 서해숙 석의정 성명은 손준욱
송기부 신용철 심영섭 오시현 오용근 원용한 유승우 유원희 윤점미 이병훈
이영아 이은영 이진희 이홍만 장혜영 정근수 정선화 정인조 정현희 정희복
조기대 조양근 주영욱 주영일 지은희 지태봉 차성호 천숙출 최정규 허민영
홍봉현 황영신 황영희 황중현 황홍순

서울

강보향 강수혜 강양원 강영옥 강윤미 강효석 고광호 고명우 구지숙 권남근
권순걸 권지숙 권혁문 김각영 김경자 김경호 김경훈 김균열 김기수 김동훈
김명일 김미경 김미영 김새론 김성민 김선희 김성연 김수목 김영균 김영모
김영순 김영은 김영진 김영진 김운성 김원봉 김유석 김은미 김은아
김일수 김재훈 김정자 김정현 김종일 김종환 김지수 김진근 김진환 김태준
김한성 김현진 김화순 김효식 김후중 김희국 김희현 나 향 나현대 나혜영
노은아 도일방주 류미아 류시자 류희승 맹봉학 문병모 문수정 문인근 문희경
민 앵 박경혜 박봉희 박상호 박성호 박연미 박은봉 박은주 박중기 박중앙
박종열 박진옥 박진희 박하영 박해철 박해정 박해진 박후임 박희성 방만식
배주희 배춘실 변연식 변연희 서보혁 서진희 서창석 서창호 선소진 선순단
손영일 손우정 손윤희 손정목 손상산 신동욱 신영철 신재현 신재훈 신필중
심소연 안건호 안병순 안희욱 안계탁 안민석 여혜숙 연선민 오낙영 오지연
오혜경 우미정 우성란 원응호 유나리 유영철 유종석 유형철 윤동현 윤영수
윤영진 윤정원 윤호상 이경목 이경옥 이경희 이경희 이광수 이광중 이기자
이든성 이두우 이상미 이상업 이상재 이상진 이선옥 이선재 이수정 이형수
이수지 이수철 이순혁 이수무 이애용 이영주 이윤 이재필 이정숙 이혜진
박종렬 임동원 임보라 임수아 임순례 임인식 임장혁 임진영 임태환 임호일
장경도 장기준 장남희 장성식 전영란 전은규 정광진 정김경숙 정상현 정성일
정소연 정수원 정영훈 정원진 정은선 정준영 조계성 조영희 조창현 지미자
차정운 채근식 채운석 최대우 최문소 최미화 최삼술 최아람 최영환 최 원
최향숙 한문덕 한상근 한상욱 한석희 한준현 한호석 허명석 현동식 홍기정
홍영의 황덕호 황 완 황윤미 황철우

성남용인

김영순 김중국 김준기 김준표 박종완 서덕석 신중수 원형석 이용위 정선희
최병철 허남해 황주연

순천

고선희 고성식 고성식 김경수 김귀진 김동수 김병태 김 석 김용재 김유옥
김이준 김인철 김정교 김정호 김종성 김종안 김준희 김하성 김현주 김혜숙
문영태 문영훈 문재경 문형렬 박광남 박귀주 박미옥 박민근 박병성 박상욱
박선택 박성훈 박옥희 박정훈 박종삼 박종삼 박종열 박종태 박종택 박찬형
박필수 배경성 배영준 백선미 서인원 손승상 손훈모 송이경 신근홍 신원식
신한후 심상욱 안병일 양순규 엄상영 오욱목 오정훈 오태현 오하근 우영미
우지현 우병우 유옥상 유진이 이겨라 이규학 이기호 이민재 이성대 이종술
이춘식 이형민 임미정 전성필 정길준 정상호 정양호 정홍운 조대훈 조정숙
조종철 조희열 지영일 최미나 최병래 최상진 최성진 최희진 허남필

안동

고정희 권영희 김두년 김새롬 김혁배 민현주 박재근 손현목 이성로 이혜선
조선아 차영숙

연구소

강수혜 강윤미 김금례 김미령 김미정 김시우 김유옥 류승화 민경숙 박복희
박운옥 박하영 변연희 손범수 이미정 이선업 이왕재 이정숙 이정학 이주은
이진우 전예경 정수경 정향란 조미향 최소영 한혜영 홍기원 황윤미

익산

강익현 고은수 김대승 김양용 김유순 김중화 김창수 김현숙 김진철 노영래
박두식 박영천 박영희 박용호 박은경 박창신 배병옥 백낙진 송동환 신귀백
심경희 안영목 안현석 오기주 유미정 유재동 유희탁 이근수 이병식 이용신
이장우 이정철 이종민 이종구 이진규 이해경 임탁균 전미영 전호정 정은순
정응용 채미진 채운석 최미애 최민우 최영이 최인경 최재철 최형남 허춘자
한상욱 홍문수 황영하 황의성 황인철

인천

강명신 강영구 고상혁 고영남 고춘화 객준경 구동훈 권창식 김갑봉 김강연
김경민 김규식 김금옥 김기수 김미경 김도율 김동건 김미경 김민정 김병철
김보희 김희경 김상기 김선경 김선미 최현호 김성만 김성식 김성태 김소희
김 속 김숙희 김시완 김영순 김오섭 김윤석 김은숙 김익균 김익숙 김일희
김정녀 김정하 김종갑 김종욱 김종중 김주숙 김준태 김종찬 김지수 정시호
김지훈 김태영 김현숙 김현주 김형진 김희숙 남익현 류미애 문경근 문병호
문선희 문영춘 문한나 이은순 박광선 박근철 박달수 박동범 박미정 박병선
박순길 박순이 박승문 박승주 박영민 박옥희 박용희 박원재 박유순 박은주
박인호 박 진 백은정 서경혜 서달원 서덕용 서영선 서재훈 소병욱 손선재
송경평 송금화 송재철 송정로 송한식 김민서 신나영 신원수 신윤래 심신아
심옥빈 심이섭 심자섭 안용원 안재환 안태근 여영석 오종훈 오창근 오혜영
유근석 유성국 유정섭 유정희 유진섭 유한경 유한철 유현석 윤성우 윤영섭
윤인준 윤화식 최장수 이경원 이덕래 이만재 이무섭 이무용 이미경 이미정
이범철 이병훈 이성로 이성은 이세구 이승천 이옥희 이용수 이용우 이우성
이은직 이은희 이재술 이재우 이정옥 이정옥 이종민 이창근 이창근 이창우
이찬직 이춘식 이현구 이현숙 이현순 이혜경 이혜정 인수봉 임경희 임동렬
임병구 임재훈 임차유 임희호 장경선 장광수 장귀숙 장동훈 장세운 전혁구
정명락 정순호 오수정 정유성 정현숙 정형서 정희진 조강희 조남순 조범규
조성태 조윤호 조인휘 조재로 주용택 지성용 진재환 최서일 최 왕 최 응
최정욱 최종락 최현숙 필갑민 하태준 한만순 한상욱 한연순 황선하 한영순
한현진 한홍준 허문예 홍 중 홍학기 황인철

전남기타

강복현 기숙희 김광식 김대원 김선태 김슬기 김은희 김형식 김희태 나옥석
노병남 박광운 박상재 박용두 박종재 배성환 서정대 송호철 유원삼 유현승
윤금순 윤미라 이균열 이동현 이승현 이우경 정영이 채일손 최 성 최영추
한명철

전주

강대권 고이석 고차원 객동순 국 산 국윤호 권동용 김성환 김여진 김은자
김재병 김주진 김진성 김충남 김태순 김효숙 노재화 문이경 민혜경 박기순
방용승 백기룡 백혜영 봉형근 서경희 서민이 송미영 송호영 신선화 심병호
양경자 양동훈 양희진 유영진 이기봉 이기섭 이기환 이동백 이도주 이승렬
이수원 이승희 이영환 이재호 이종태 이지는 이형구 임익근 장종철 정기동
정형용 조경희 조정현 채주병 천호성 최금희 최희용 최용기 최인규 최정욱
허민순 황재현

제주

고권일 권영우 김광중 김동원 김민수 김성규 김중환 문무병 박한백 방은미
양윤호 오명애 오상진 오주연 정영주

평택경기기타

강경남 권오일 권차량 김민수 김상용 김영호 김주성 김준기 김택균 박성철
박해정 방명수 신종원 연창호 염형만 오영미 이기영 이경수 이수용 이수정
이양진 이진희 이해준 정낙훈 정인규 조재길 채한석 추영배 한상진 허병문
황영선

해남

강태양 김수경 김양수 김영자 김은근 김은숙 김점삼 나성근 문재식 문형귀
박병을 박석중 박영자 박종삼 배종진 백중수 봉문수 신화균 안소희 안중기
양하승 오성재 오영택 유문식 윤예중 윤준서 이우진 이원열 이정화 이지영
임현삼 정미호 장우광 정거섭 정경철 최신영 최영수 한강희

♥ 광주평통사

평화아카데미 진행



광주에서는 매월 1회 수요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마지막 수요행동은 12월 11일(수) 광주YMCA 2층 백제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날 '수요행동은 <해방 74년 우리에게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1부는 '원폭피해자 현황과 문제의 현재적 의미'라는 주제로 노승연 청년 회원이 프리젠테이션(PPT)발표를 하고, 2부는 원폭피해자 1세인 박윤규 어르신을 모시고 원폭피해의 경험과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부는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의 이유와 원폭투하의 배경과 그로인해 피해를 당한 한국 원폭피해자문제와 현황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원폭피해자 문제의 현재적 의미를 소개하고, 핵무기 금지조약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대담은 원폭피해자 1세 박윤규 어르신과 정동석 국장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을 가게 된 배경과 원폭 투하 당시의 상황, 피해 현황과 해방 이후의 삶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참가한 참가자들은 "원폭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날 수요행동을 통해 광주지역에서 한국원폭피해자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나눈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회원 송년회



12월 12일 저녁 회원 송년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난 11월 19일 효순미선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올 한해도 많은 일들을 함께 치뤘던 것을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장소를 광산구로 하여 광산구에 사는 회원들이 많이 참석했고 2019년 신입회원들이 많이 참석해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서 오랜만에 서로 인사도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2019년 한 해 수고한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천에 앞장서고, 회원들을 챙기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정규영 대표, 술선수범하여 실천에 나선 운영위원 모두 감사합니다.

| 정동석 |

♥ 군산평통사

생화학군 반입·실험 주한미군 규탄 기자회견 참가



11월 4일 군산미군기지 정문에서는 미군기지에 생화학군을 반입하고 실험한 주한미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가 있었습니다.

UN이 국제협약으로 화학무기를 금지하는 협약을 비준하고 미국은 화학무기 금지조약에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주피터 프로그램으로 탄저균을 들여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 더 무서운 보툴리눔, 포도상구균 독소이드 등을 반입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평통사는 군산의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전면 개정하도록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주한미군 관련 탁송품의 세관 검사를 제한하고 있는 한미SOFA 9조를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연동되어 있는 민사청구권, 형사재판권, 환경조항 등에 대한 전면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미군이 한반도에 생화학물질, 핵물질 등 대량살상용 무기를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정부와 사전협의 및 동의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한국정부가 위험물질의 반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한일군사보호협정 재연장 반대", "불법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그만주자!",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한국에게 부담지우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중단!"을 외치며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군산평통사는 무상으로 쓰는 군산 미공군기지의 임대료를 내놓으라고 강하게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 최소영 |

♥ 목포평통사

평화사랑방

11월 21일에는 평화사랑방(공부모임)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을 읽었습니다. 사전 준비 없이 모임에서 함께 읽기만 하다 보니 내용도 많고 긴 논평을 한번에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모임에 나온 참가자들은 사전에 공부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모임이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정 교육



12월 19일에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번 11차 협정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항목 추가에 대한 불법부당성에 대하여 함께 공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박상준 교육위원의 발표가 있는 후에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 박상준 |

♥ 대구평통사

사드기지 정문 앞 평화행동



소성리 사드기지 정문 앞 매일 진행되는 평화행동에 회원들이 1인 시위로 동참했습니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따른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강제하고,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한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도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임을 알기에 사드를 철거시키고 미군을 돌려보내는 것만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길임을 상기해 봅니다.

평화는 얼지 않는다



2017년 3월 11일 시작된 소성리 진밭 평화교당 평화기도가 12월 5일로 1000일을 맞이했습니다. 원불교성지수호비대위에서 '천일의 적공 piece&peace'의 이름으로 준비한 일정에 그동안 마음을 보태온 많은 연대자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천일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며 평화를 위해 공을 쌓아오신 많은 지킴이들과 연대자들에게 감사사를 전합니다.

너·나·우리가 평화이다



12월 7일 김천 농소면 이화만리에서는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가 주최한 김천촛불 후원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드투쟁에 함께 한 많은 분과 대구회원들이 함께해 사드철거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평통사에서 모금을 하여 후원금도 전달하였습니다.

공부모임



'한일 지소미아 연장 결정에 대한 평통사 논평'과 '제1차 SCM 결과에 대한 평통사 논평'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아쉽지만 매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 보령평통사

월례 회원모임



11월 25일에 월례 회원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날 교육으로 유영재지도위원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농민회 사무실을 채운 14명의 회원들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역사적 배경을 듣고 미국의 횡포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회원들 모두 강의에 집중하여 그 열기로 사무실을 뜨겁게 달궜었습니다. 역시 평통사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전문성과 정확성에 모두가 매료될 수밖에 없나봅니다.

신입회원교육



12월 11일에 신입회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명의 신입회원과 4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유영재 지도위원이 평통사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평통사의 활동에 관한 내용의 교육이라 특히 더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참가한 신입회원들은 평통사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줄 몰랐으며 감동섞인 소감을 많이 이야기 해졌습니다.

공부모임과 송년회



12월 18일에 월례 회원모임 겸 공부모임과 송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6시 30분부터 시작된 공부모임에서는 미국이 불법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에 대해서 유영재지도위원이 PPT자료를 이용해 강의했고 강의를 끝내고 회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시부터는 한해를 마무리하며 송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남미자 회원이 평소에 활동을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감사하게도 10만원을 쾌척해주었습니다. 또한 이날 송년회 참여하신 분이 회원가입을 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 부천평통사

한국현대사 마지막 강좌



앞서 진행한 3번의 강의를 총정리하고, 한국현대사를 통해 본 현재적 과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한미동맹이 북한에 대한 방어라는 미명하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하고 있고, 이 동맹으로 인한 문제인 한일지소미아, 방위비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과 유엔사 강화 등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어떻게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를 공부했습니다.

평화발자국



부천에는 역사 현장의 흔적이 거의 없어 그동안 평화발자국을 진행하는 주체들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준비 주체가 더 결합하여 평화발자국을 다시 재건하고 새롭게 진행했습니다. 준비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참가자가 많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홍보과정에서 긍정적 반응들이 많아 이후에 조금 더 힘차게 진행될 가능성도 엿보게 된 성과도 있었습니다.

월례실천

매월 부천역에서 그날의 주요현안을 가지고 시민들을 만납니다. 지난달에는 방위비분담금의 내용으로 홍보전을 진행했습니다. 부천민중연대 동지들과 함께 여러 사안들을 함께 들고 촛불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송년회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1부 순서로 평통사가, 부천평통사가 올 한해 집중해서 실천한 내용을 영상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2부에서는 맛난 음식도 함께 나누고 회원들이 가져온 물품으로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재미도 있고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 주정숙 |

♥성남용인평통사(준)

고기교회 통일위와 공동학습



11월 회원공부모임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시작했던 15일 오후 7시에 고기교회 통일위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황윤미 서울평통사 대표를 강사로 하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실상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기관 공동학습을 고기교회에서 가졌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처음 공부하게 된 고기교회 교우들은 큰 관심을 갖고 강의를 들었으며 우리나라가 미군에게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해 온 것에 대해 놀라워했습니다. 촛불교회 김준표목사는 강의를 듣고 촛불교회 거리기도회를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규탄기도회로 열기로 하였습니다.

| 서덕석 |

♥ 부산평통사

청년 평화아카데미



청년평화 아카데미는 '한국 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청년 평화 아카데미 - 해방 74년, 우리에게 아직 불이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주제로,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를 알리고, 구술채록에 함께 할 청년들을 모으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캠페인과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11월 19일 동의대학교, 22일 진주 경상대학교, 28일 부산대학교까지 세 차례 진행하여 총 60명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동의대에서는 한국 원폭피해자세 김광자 어르신과 '한국 원폭피해자와의 간담회', 경상대에서는 박석분 상임운영위원이 '한일관계로 바라본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부산대에서는 류병문 한국원폭피해자 부산지부장을 모시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2월 월례평화행동



올해 마지막 월례평화행동이 12월 15일(일) 오후 5시, 서면 지하상가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남한, 북한, 미국, 일본의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

다. 그리고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를 알리는 전단지들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한편에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역사와 핵금지조약을 설명하는 전시물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방위비분담금 중단 시위를 함께 했습니다. 이날 평화행동에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부산지부 지부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부산에 살고 있는 원폭피해자인 공기연 어르신도 함께 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 중 한 분은 자신도 '한국원폭피해자'라며 핵무기금지조약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피폭 후유증으로 인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글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해야 해'라고 응원해주었습니다.

효순미선 평화공원조성 기금마련 콘서트



12월 21일(토), 오후 7시, 동래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효순미선 평화공원 기금마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박종철합창단, 소프라노 이영림, 가수 이지상, 재즈피아니스트 하지림, 베이스 박주민의 공연과 시인 송경동, 김요아킴의 시 낭송, 효순미선 추모비 작가 김서경, 김운성, 권정호 변호사의 이야기, 평화홀씨 합창단의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평화홀씨 합창단은 〈소녀의 꿈〉, 〈잊지 않을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등 1년 동안 갈고닦은 노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콘서트 중간에는 한미동맹 현안을 상기하는 상징의식도 진행되었습니다. 강문수 대표는 부산을 비핵평화의 도시로 만들고 호소하며 그걸을 평통사와 함께 하기를 부탁했습니다. 합창홀씨의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참가자 소개와 인사 후 다같이 모든 참가자들이 '상록수'를 부르며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 유수진 |

♥ 서울평통사

서울시 원폭피해자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12월 6일(수), 오후 2시, 서울시의회에서 최정순 의원실과 김화숙 의원실 주최로 서울원폭피해자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 발제자로 나선 최봉태 변호사는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서울시 조례에 담겨야 할 주요한 내용을 짚어가며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후 토론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원 조례에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2,3세까지를 원폭피해자로 규정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과, 늦게 지원조례를 제정하지만 어느 지자체보다도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만큼 더 구체적으로 더 실질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토론회를 마치고, 참가한 원폭피해자분들께 구술채록 작업 사전에 받는 설문지를 드리고, 서울지부 사무실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서울지부 분들과 몇 차례 얼굴을 뵈게 되니까, 안면도 트이고, 서로서로 인사와 소개도 하면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부당한 방위비분담 요구 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원하는 기도회 참가

11월 21일(목), 오후 7시, 광화문 KT앞에서 목요촛불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날 주제는 방위비분담금 규탄과 한반도 평화입니다. 시대의 증언으로 서울 평통사 황윤미 대표가 발언을 하였습니다.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성깔있는 토론(방성토) 촛불



가득이나 나라살림도 어려운데, 방위비분담금을 여섯 배나 올려달라는 미국의 뻔뻔한 요구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3차 협상이 있던 11월 19일(화), 오후 7시에 광화문 KT앞에서 방성토 촛불을 들었습니다. 강수혜 회원의 제안으로 들게 된 이 촛불에 서울 평통사 회원, 향린교우, 일본인 두 분까지 참여하여 나름 의미 있고, 힘차게 진행하였습니다.

2019 민중대회 참가



11월 30일(토),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대회에 서울 회원들, 청년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강압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캠페인을 하였는데, 대회 참가자들이 관심 있게 우리의 피켓팅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020년 서울평통사 총회

2020년 3월 27일(금), 오후 7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예정)

| 황윤미 |

♥ 순천평통사

공부모임



11월 11일 공부모임에 회원 15명이 참여하여 정동석 광주평통사 사무국장의 강의로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대하여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핵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평통사도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핵무기금지조약 촉구 서명 운동 등 이후 평화행동을 힘차게 진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운영위



11월 29일 평통사 11월 운영위가 있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한미연례안보 회의 대응 등 12월 선전방안과 일상활동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부터는 매주 목요일 선전활동이외 월요일 아침선전을

김유옥 상임대표 주관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송년회를 순천615통일합창단과 함께 12월 17일(화)에 진행했고, 2020년 2월 29일 예정인 효순미션 평화공원조성 기금마련 콘서트 장소는 순천중앙교회(예정)와 협의중에 있고, 세부일정과 프로그램등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

♥ 대전충청모임

"평화협정과 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 논산 강연회



11월 7일, 논산계룡회원모임에서 제안하고 논산시 민주 시민단체들이 함께 준비하여 진행된 "평화협정과 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 강연회가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성과 침해된 주권회복을 위한 실천방안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논산에선 참으로 오랜만에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던 터라 그 의미와 감동이 컸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를 걸었던 평통사 평화발자국 이야기를 듣고는 풍물을 치는 고등학교선생님이 논산의 동학이야기로 다시 만나 큰일 한번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늦게까지 이어진 뒤풀이 시간에서 참 흐뭇하고 기대에 찬 연대의 다짐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사회는 이우곤 회원이 인사말은 이도구 목사가 강연은 유영재 연구위원이 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2명이 회원가 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전모임

12월 5일, 대전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생활나눔에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1월중 평화아카데미 등 2020년 상반기 일정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습니다.

음성제천, 홍성, 천안아산에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에 대한 공부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유영재 |

♥ 인천평통사

평화사랑방



'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2차협상, 어떠셨나요?' 이번 평화사랑방에서 유정섭 사무국장은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국의 의도는 인도·태평양전략을 수행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기에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렵다고 느끼지만 알고나면 쉬운 평통사의 내용은 평화사랑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매월 첫 번째 화요일 저녁 7시, 사무실에서 만나요^^

인천교육공동체 교육실천포럼 - 한국원폭 피해자 문제 알리기



인천교육공동체 교육실천포럼에서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를 알렸습니다.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11월 27일 가원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해방74년, 우리에게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한국원폭 피해자 문제를 다뤘습니다. 15명 정도의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원폭피해자 이기성어르신을 모시고 당시 참혹했던 원폭피해 상황을 들었습니다. 심신아 회원의 진행과 김인아 청년회원의 '한국원폭피해 현황과 의미'라는 주제로 강의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후에 회원가입도 해주셨습니다.

송년회 및 후원행사



2019년 인천평통사 송년 및 후원행사 '사람이 평화다, 평화가 사람이다'에 보내주신 회원들의 성원과 후원에 감사합니다.

12월 14일(토)에 진행된 송년 및 후원행사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김성태 대표의 사회, 산마을 학생 노래, 구동훈 청년운영위원의 휘슬공연, 강동주 신나영 회원으로 구성된 오카리나 공연, 김일희 대표의 버나 공연 등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를 알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심신아 회원의 아트풍선 무대와 김은옥 회원의 꽃차는 후원행사를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서경혜 운영위원을 비롯하여 음식을 만들어 주신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회원들이 만들어가는 인천평통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 총회를 시작으로 다시한번 힘차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을 축하드립니다

한홍준, 김종욱, 박병선, 김규식, 유한철, 이은영, 이경원, 한상균, 문영춘, 서은철, 김태정, 박근철

*주변에 평통사를 소개해 주세요, 회원가입을 권유해 주세요.

| 유정섭 |

중앙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연 락 처 : 02) 712-8443 spark946@hanmail.net
계좌번호 :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서울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연 락 처 : 02) 713-1992 seoul-spark@hanmail.net

부천평통사

주 소 : 14572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0번길 46 2층
연 락 처 : 032) 671-7179 bcspark0601@hanmail.net

인천평통사

주 소 : 22156 인천시 남구 주안동 608-5번지 201호
연 락 처 : 032) 428-2230 icspark523@hanmail.net

보령평통사

연 락 처 : 010-2292-7883 김영석

익산평통사

주 소 : 54542 전북 익산시 고봉로36길 9-2
연 락 처 : 063) 832-0018 king208208208@hanmail.net

군산평통사

주 소 : 54077 전북 군산시 백릉안4길 6
연 락 처 : 010-4470-6065 박운옥

전주평통사

주 소 : 5495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1길 46-8
연 락 처 : 010-2237-7822 이재호

광주평통사

주 소 : 61245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43길 광주YWCA 605호
연 락 처 : 010-5610-5230 정동석 kj-spark@hanmail.net

순천평통사

연 락 처 : 010-4623-6906 김용재

광양평통사

연 락 처 : 010-9315-1796 정일태

나주평통사

연 락 처 : 010-3602-1849 이정훈

목포평통사

주 소 : 58684 전남 목포시 신흥로83번길 5 3층
연 락 처 : 010-9260-4863 김종수

해남평통사

연 락 처 : 010-5612-8125 박승규

안동평통사

연 락 처 : 010-9867-1599 배용한

대구평통사

주 소 :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연 락 처 : 053) 428-0727 dgspark@hanmail.net

부산평통사

주 소 : 47342 부산광역시 진구 신암로 177번길 2
연 락 처 : 051) 635-0964 bsspark@hanmail.net

성남용인평통사(준)

연 락 처 : 010-2462-1377 서덕석

김제평통사(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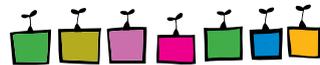
주 소 : 김제시 요촌동 서해화인빌 2동 702호
연 락 처 : 010-9957-7478 손은하

대전충청모임

주 소 : 34623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67번길 52 805호
연 락 처 : 010-3297-0568 유영재

무안모임

연 락 처 : 010-3645-2722 문영란



상임대표 문규현 **공동대표** 교영대 김병균 문홍주 박상희 변연식 이일영 이천우 임종철

감 사 박유순 안병순 **지도위원** 강정구 김순정 김영훈 명진 박순희 배종열 조주형 정혜열

자문변호사 권정호 김소리 김형태 남성욱 박주민 이남진 이덕우 장경옥

발행일 2019년 12월 30일 **발행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발행인** 문규현

주 소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 (충정로3가) 2층 **전 화** (02)711-7292, (02)712-8443 **팩 스** (02)712-8445

홈페이지 www.peaceone.org **전자우편** spark946@hanmail.net **후원계좌**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록번호 서울라 10482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03년 10월 9일

평홍사 회원여러분
2019년 한해도 수고 하셨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평화가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